

KIA '결승타 1위' 안치홍 신해결사로 화려하게 등장

타율·홈런·타점·장타율·출루율·득점권 타율 팀내 1위



내야수 안치홍이 타이거즈 신해결사로 화려하게 등장하고 있다. 안치홍은 14일 현재 데뷔 이후 가장 눈부신 성적 거두고 있다. 29경기에 출전해 124타석을 소화했다. 110타수 40안타 35타점 20득점을 기록하고 있다. 타율은 3할6푼4리, 40개의 안타 가운데 홈런은 9개, 2루타 7개를 터트리는 등 장타가 16개이다. 멀티히트만 13번 쳤다. 출루율 4할1푼9리, 장타율 6할7푼3리로 OPS가 1.092이다. 게다가 득점권 타율이 4할5푼5리나 된다. 타율, 홈런, 타점, 장타율, 출루율, 득점권 타율이 모조리 팀내 1위이다. 리그로 따지면 타율 6위, 홈런 공동 8위, 타점 3위, 장타율 3위, 출루율 8위, OPS 4위, 득점권 타율 공동 2위이다. 특히 득점권에서 확실해진 타격을 하면서 결승타를 6개나 쳤다. 한화 외국인타자 호잉과 함께 KB0리 그 공동 1위이다. 지난 10일 두산과

의 광주경기에서 연장 11회말 끝내기 우중간 안타를 날리며 6개째를 기록했다. 이제는 팀내에서 가장 확실한 해결사로 인정받고 있다. 13일 삼성과의 대구경기에서는 3-7로 뒤진 가운데 추격의 투런포를 가능케 역전의 발판을 놓았다. 흥미로운 대목은 사구에 맞아 9경기나 빠졌는데도 극강의 타격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만일 9경기를 모두 출전했다면 개인 기록은 훨씬 풍성했을 것이다. 사구에 맞을때도 최고의 페이스를 보였다. 안치홍이 데뷔 이후 간판 해결사로 활약한 적은 없었다. 최다 홈런은 21개(2017년), 최고 타율은 3할3푼9리(2014년), 최다타점은 93개(2017년), 최고출루율 3할9푼(2014년), 최고장타율은 5할4푼4리(2014년)이었다. 올해 모든 부문에서 커리어하이 기록 페이스이다. 해결사의 덕목인 타점 페이스가 뛰어나다. 29경기에서 35타점을 올

렸다. 단순하게 경기당 1점을 넘어 1.21을 기록하고 있다. 이 수치는 남은 103경기에 대입하면 무려 124점 페이스이다. 35타점을 더하면 159타점을 올릴 수 있다. 시즌 내내 최상승 페이스는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100타점은 기본이고 120타점은 충분히 가능한 페이스이다. 타순도 6번타자로 3할8푼5리, 19타점, 6홈런으로 강했다. 최근에는 3번타자로 나서고 있는데 3할5푼7리, 14타점, 2홈런으로 만만치 않은 타격을 하고 있다. 클린업트리으로도 손색없는 활약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안치홍이 부귀하면서 KIA 타선은 3할 타선으로 달라졌고 응집력도 좋아졌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비결은 노력과 변화였다. 우선 꾸준한 필드업을 통해 힘을 키웠다. 스윙 스피드도 빨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상적인 발사각을 갖추며 땅볼보다는 뜬공이 많아지면서 타구의 스피드도 빨라졌다. 팻아웃 타구가 유난히 많아졌다. 비거리가 120m가 넘는 홈런도 골잘 때린다. 타격폼이 바뀌었다. 방망이 손잡이를 얼골 앞에 세워놓고 투구를 기다린다. 상대투수가 외인타임을 하면 상체를 오른쪽으로 돌리고 곧바로 스윙하는 타격폼으로 수정했다. 스윙 궤도도 간결해지고 빨라지면서 확고한 타격으로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투수들에 대한 연구와 경험치가 축적되면서 리그 최상급 타자로 변신했다. 신해결사로 변신한 안치홍의 질주에 팬들도 경이로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프로배구 'FA 최대어' 전광인, 현대캐피탈 간다

연봉 5억2000만원 계약기간 3년

남자부 프로배구 자유계약선수(FA) 시장 최대어로 손꼽힌 전광인이 현대캐피탈의 품에 안겼다. 현대캐피탈은 15일 전광인과 연봉 5억2000만원에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 기간은 3년이다. 전광인은 원소속구단인 한국전력과 우선 협상에 실패해 시장에 나왔다. 오래 전부터 전광인을 눈여겨 본 현대캐피탈은 타구단과의 교섭이 가능해진 이날 계약 사실을 발표했다.

지난 시즌 정규리그 챔피언인 현대캐피탈은 전광인의 가세로 전력에 날개를 달았다. 11일 이탈리아 몬차에서 끝난 한국배구연맹(KOVO) 외국인 선수 드래프트에서 검증된 크리스티안 파다르(헝가리)를 데려온데 이어 전광인까지 합류하면서 파다르-문성민-전광인으로 이어지는 초호화 공격 라인을 구축했다. 전광인은 대표팀 일정을 마친 뒤 팀에 합류할 예정이다.



뉴스스

펜싱 사브르 오상욱, 러시아 그랑프리 금메달

남자 에페는 월드컵대회 단체전에서 은메달

오상욱(대전대)이 펜싱 남자 사브르 국제그랑프리 개인전에서 값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오상욱은 14일(한국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2018 남녀 사브르 국제그랑프리 펜싱 선수권대회 남자부 개인전에서 이탈리아의 루카 쿠라톨리를 누르고 정상에 올랐다. 준결승전에서 모이타바 아베디니(이란)를 15-9로 꺾은 데 이어 결승전에서는 구본길을 이기고 올라온 쿠라톨리를 15-8로 완파했다. 구본길은 동메달을 차지했다. 여자 사브르 김지연(익산시청)은

모스크바 그랑프리 3위를 차지하며 가능성을 확인했다. 김지연은 8강에서 프랑스의 세실리아 베르데로를 15-11로 꺾고 준결승전에 진출했으나 결승에서 소피아 벨리카(러시아)에게 5-15로 패했다. 한국 남녀 사브르 대표팀은 러시아 그랑프리에서 금메달 1개와 동메달 2개를 획득하며 7월 우시 세계펜싱 선수권대회, 8월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전망을 밝혔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남자 에페 월드컵에서도 메달 소식이 전해졌다. 정진선(화성시청), 박경두(해남군청), 박상영(울산광역시청), 정병



찬(상무)으로 구성된 한국은 단체전에서 프랑스에 이어 은메달을 차지했다. 이로써 한국 남자 에페팀은 2017~2018 시즌 열린 5개의 월드컵 대회 단체전에서 모두 메달을 따냈다.

'골프 여제' 박인비, KLPGA 투어 무승 징크스 벗을까?

오늘부터 닷새간 두산 매치플레이 챔피언십 개막



박인비(왼쪽)와 김지연

'골프 여제' 박인비(30·KB금융그룹)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무승 징크스를 깨기 위해 도전장을 던졌다. 박인비는 16일부터 닷새간 강원도 춘천 라데나 골프클럽(파72·6313야드)에서 펼쳐지는 KLPGA 투어 두산 매치플레이 챔피언십(총상금 7억원, 우승상금 1억7500만원)에 출전한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메이저 대회 7승과 함께 통산 19승을 거둔 박인비는 유독 국내 대회와 인연이 없다. 올림픽 금메달과 유럽, 일본 투어에서도 우승을 맛봤지만 국내에서는 한 번도 정상에 서지 못하고 준우승만 6차례 했다. 지난해 두산 매치플레이에서도 승승장구하며 결승에 진출했지만 김지연(27·SK네트워킹)에게 패하

며 징크스를 깨지 못했다. 올 시즌 LPGA 투어에서 우승 1회와 준우승 2회를 하며 삼급과 올해의 선수 등 주요 부문 선두를 달리고 있다. 세계랭킹 1위에도 복귀했다. 이러한 상승 분위기 속에 국내 대회 첫 우승을 위해 두산 매치플레이를 정조준했다. 박인비는 "세계 1위로 한국에 돌아와 개인적으로 기쁘다. 작년까지는 한국에서 플레이하는 것이 부담으로 느껴질 때가 있었는데, 올해는 편한 마음이 더 크다"며 "조별 리그부터 최선을 다해 최대한 오래 살아남겠다"고 밝혔다. 천하의 박인비도 KLPGA 투어 첫 우승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매치플레이는 일반 대회와 달리 변수 투성이다. 18홀 단판 승부

로 승자가 정해지는 만큼 정상급 선수들이 하위 시드 선수에게 덜미 잡히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지난해 박인비의 국내 대회 첫 우승을 가로 막은 김지연은 매치플레이 강자로 칭할 만하다. 11회째를 맞는 이 대회에서 유일하게 2승을 거뒀고 2015년에는 4강에 올랐다. 김지연은 "타이틀 방어를 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다. 매치플레이는 흐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경기에서 승리하겠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며 "상대가 누가 되든지 평정심을 유지하고 경기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시즌 2승을 거둔 장하나(26·BC카드)도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힌다. 장하는 9번의 매치에서 7승을 챙겨 승률이 78%나 된다. 출전 선수 중 최고 승률을 자랑한다. 주요 부문에서 장하나에 이어 2위를 기록 중인 '슈퍼 루키' 최혜진(19·롯데)은 첫 출전하는 매치플레이 대회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는 관심을 모은다. 지난해 6관왕을 휩쓴 이정은(22·대방건설)도 초반 부진을 털어내겠다는 각오다. 김지현(27·롯데), 오지현(22·KB금융그룹), 이지현(22·문영그룹) 등은 '지현 시대'의 재기를 꾀한다. 초대 대회부터 꾸준히 출전하고 있는 김보경(30·요건건설), 윤슬아(32·파인테크닉스), 홍란(32·삼천리) 등 베테랑 트리오도 노련함을 앞세워 우승에 도전한다.

뉴스스

기성용 "5년간 스완지에서 뿔 것 큰 영광"...이적 공식화

EPL 잔류 실패해 팀과 재계약 체결 가능성 소멸

올 여름 이적이 확실시 되는 축구대표팀 미드필더 기성용이 스완지 시티와 결별을 공식화했다. 기성용은 14일 SNS에 "5년 동안 스완지를 위해 뿔 것은 엄청난 영광이었다. 매 경기 지지해 준 팬들에게 감사한다"고 적었다. 기성용은 2012년 스코틀랜드 셀틱을 떠나 스완지 시티로 이적했다. 선덜랜드로 임대된 2013~2014시즌을 제외한 5시즌 동안 스완지 시티의 중원을 책임졌다. 올 여름 스완지 시티와의 계약이

마무리되는 기성용은 새로운 팀에서 차기 시즌을 맞이한다. 스완지 시티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잔류에 실패하면서 팀과 재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은 사실상 소멸됐다. 기성용은 "지난 수년 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해 팬들에게 죄송하다. (강제가 확정된) 오늘 일에 좌절하고 실망했다"면서 "스완지 시티가 축구 철학을 되찾아 더 강해진 모습으로 돌아올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기성용은 이날 발표된 2018 러시아월드컵 예비명단 28명에 무난히 이름을 올렸다. 남은 기간 부상 없이 최종 엔트리에 합류할 경우 생애 세 번째 월드컵 무대를 밟게 된다.

뉴스스

손흥민, 시즌 마치고 귀국...러시아월드컵 모드 돌입

18골 11도움 올려 개인 최다 기록 경신

토트넘 입단 후 최고의 시즌을 보낸 손흥민이 1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손흥민은 13일 끝난 2017~2018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에서 18골(리그 12골) 11도움(리그 6도움)을 올렸다. 지난 시즌 21골 7도움(28개)보다 1개 많은 29개의 공격 포인트

로 개인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손흥민은 1주 간 휴식을 취한 뒤 21일부터 진행되는 대표팀 훈련에 참가한다. 한국 축구 대표팀의 최고 스타인 손흥민은 2018 러시아월드컵을 통해 생애 두 번째 '꿈의 무대'를 준비한다. 첫 출전이었던 2014년 브라



질 대회에서는 알제리전에서 득점포를 가동했지만 팀이 조별리그에서 탈락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이정후·김하성마저도...시름 깊어지는 '부상병동' 넥센

'부상병동' 넥센 히어로즈의 선수 공백이 더욱 커지게 됐다. 이정후(20)와 김하성(23)이 나란히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했다. 이정후는 지난 13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두산 베어스와의 경기에서 1회초 상대 선발 투수 조쉬 린드블럼의 투구에 왼 종아리를 맞았고, 곧바로 교체됐다. 전날 잠실구장 인근 올림픽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MRI) 진단을 받은 이정후는 이날 고대구로병원에

서 재검진을 한 결과 왼 종아리 근 섬유 미세손상 진단을 받았다. 이정후는 치료를 위해 15일 일본 요코하마로 출국하며 이따따 치료원에서 약 1주 동안 치료를 받고 23일 귀국한다. 김하성은 다소 황당한 부상을 당했다. 휴식일에 집에서 부주의 탓에 부상을 입었다. 넥센은 "김하성이 집안에서 깨진 화분을 정리하던 중 오른 손바닥이 찢어지는 부상을 당했다"고 전했다. 이 부상으로 7바

를 켜맨 김하성은 1군 엔트리에 제외됐다. 가뜰이나 박병호(32), 서건창(29) 부상 공백을 안고 있는 넥센에 이정후, 김하성의 연이은 부상은 대형 악재다. 박병호는 4월 13일 고척 두산전에서 내야 땅볼을 친 후 1루로 뛰다가 왼쪽 종아리 근육이 파열되는 부상을 입어 전력에서 이탈했다. 서건창은 3월31일 대구 삼성전에서 오른 정강이를 다친 이후 경기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